

故 이어령 1주기 추모 특별전

# 이어령의 序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寧仁大學館

---

故 이어령 1주기 추모 특별전

# 이어령의序

---

전시기간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부터  
4월 23일 일요일 까지

---

전시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전시실

---

도슨트

매주 수 15:00, 토·일 14:00 진행  
(약 20분 소요)

---

표지 사진

김영호

# 끝이 없어. 이어지고 펼쳐질 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중

## 무한대

이어령 선생님은 무한대라는 기호를 좋아하셨습니다. 열려있는 사고와 포용하는 마음이 합쳐진 선생님의 삶이 그리웠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학자와 교육자, 행정가 그리고 크리에이터(Creator)로 경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 序 이어령의 서

故이어령 선생님의 1주기를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그 무한의 길의 시작에 있는 머리말입니다. 2주기, 3주기 ... 영면을 통해 끝이 나지 않을 기록을 기억하는 새로운 버전의 이어령 선생님을 만나는 머리말, 이어령의 서(序)입니다.

**침묵의 복도** 전시는 어두움으로, 침묵으로 시작합니다. 어둡고 고요한 침묵의 길을 걸으며 잠시나마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벗어나 에도와 묵상의 마음을 갖습니다.

**창조의 서재** 이어령 선생님의 주요 유품이 개별, 집중, 몰입형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원고인 『눈물 한 방울』을 집필하셨던 책상과 의자, 생전에 사용했던 오래된 안경, 사진, 명함, 낡은 가방 등 작은 소품들까지 그대로 전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말의 힘, 글의 힘, 책의 힘**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에 육박하는 전시장 벽면 가득히 채워져 있는 이어령 선생님이 평생 쓴 책 중 공저나 연재 칼럼류를 제외한 단독저서 185권(일반 119권, 어린이 책 66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령과 조우하다** 공적 영상을 통해 기획자로서,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서, 교육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이어령 선생님을, 사적 영상에서는 손자를 안고 있는 등 이어령 선생님의 따뜻했던 일상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한의 길** 이어령 선생님의 삶의 궤적을 통해 경계와 끝이 없던 삶의 모습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무한대 기호와 닮아 있음을 무한의 길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굿나잇 이어령**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에서 "그래, 매일 저녁 굿나잇 키스를 하듯이 너의 영혼을 향해 이제부터 편지를 쓰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착안해서 만든 미디어 아트입니다. 관람을 마친 후 이어령 선생님께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창조와 파괴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야.  
창조를 하려면 먼저  
파괴를 해야 돼.



**01** 마지막 원고인 『눈물 한 방울을 집필하셨던 공간의 책상과 소품들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 책상에서 2019년 10월부터 별세한 달 전인 2022년 1월까지 총 147편의 짧은 글을 쓰셨습니다.  
**02** '22분 52초 출연, 중앙일보 초고'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어령 선생님은 온라인 파일을 정리한 USB를 개별적으로 라벨링한 상자에 보관하셨습니다. 깔끔하고 논리적인 성품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03** 집안 어디에나 필통이 있습니다. 모두 수북수북 필기구들이 가득합니다. 늘 손으로 원고를 쓰셨기에 손이 닿는 곳 어디에나 두셨던 것 같습니다. 전시에는 2층 방과 거실의 필통 5개를 한번에 모아 소개합니다.

**04** 영인문화관에는 아직 이어령 선생님 생전 그대로 모든 물건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모두 직접 쓰시던 것이라 하나하나 다 의미 깊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어령 선생님 유품이 맞나 싶은 것들도 있었는데,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가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당신과 출생연도가 같은 미키와 미니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05** 필기구와 잔돈 통  
**06** 시그니처 인경  
**07** 온양명륜고림심상 소학교 1학년 때의 통지표

『이어령, 80년 생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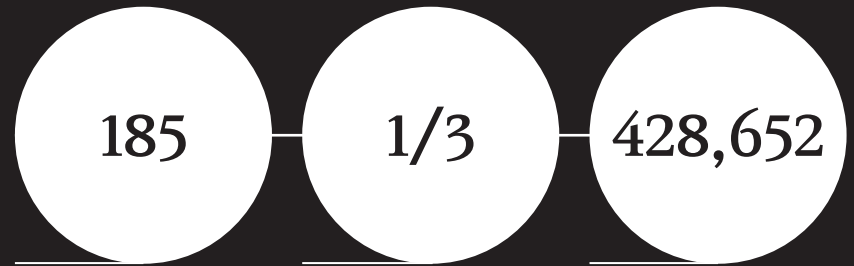
이어령 선생님은 문학가로서, 장르를 넘나드는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직접 사용하셨던 필기구, 안경 등을 보며 범접할 수 없는 시대의 지성이지만 한 명의 사람이기도 했던 이어령 선생님을 만나보세요.

흔적이 모여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 같은 사물들이 둥근 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원은 굴렁쇠를 의미합니다. 88서울올림픽에서 큰 운동장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소년이 굴리던 굴렁쇠를 상징합니다. 생각의 틀을 깨는 창조의 서재에서 만난 창조의 도구들은 특별하지 않았습디다. 내가 쓰던 볼펜과 어느 집이나 있을 법한 인형들. 특별한 것은 창조를 위해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어령 선생님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언어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과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글쓰기이고  
말하기의 핵심입니다.

『거시기머시기』중



**185** 평론가가 쓴 평론집, 학자가 쓴 논문집, 에세이와 시와 소설과 희곡을 쓴 창작작품집, 강연자의 대담집과 강연집,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책. 모두 이어령 선생님의 저서 185권입니다.

**1/3** 이어령 선생님의 단독저서 185권 중 1/3인 66권이 어린이책이라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이어령 선생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428,652** 사람, 생각, 우리, 문화, 사회, 소리, 한국, 사랑... 428,652개의 단어와 30개의 대표 문장을 전시장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 주요 저서 5권

**저항의 문학, 1959**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와 저항으로 시작된 첫 문학평론집입니다. 문학의 주류가 되기를 거부하고 우상의 파괴를 지향해 온 이어령 선생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1963** 1963년 베스트셀러였던 경향신문 연재 에세이를 모은 책입니다. 가난과 배고픔에 몸부림치던 시절, 울음, 굶주림, 웃놀이, 돌담, 하얀 옷, 끼리끼리 등 그저 의미 없다고 여긴 우리 일상과 풍습을 청년의 시선으로 해석해 한국 문화의 본질과 정서의 심층을 탐구한 책입니다.

**축소지향의 일본인, 1982** 원본은 일본어로 쓰여졌으나, 한국어, 영어, 불어, 중국어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일본학' 연구자로서 특유의 날카로운 비평적 선구안으로 일본인과 일본 문화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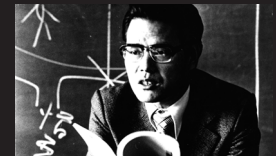
**공간의 기호학, 2000** 시편 아니라 소설, 희곡 등 모든 문학 장르와 회화, 건축, 그리고 무용 같은 비언어적 예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 문학 공간론입니다. 문학 공간의 기호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청마 유치환 선생님의 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셨습니다.

**너 어디에서 왔니, 2020** 한국인 이야기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너 어디에서 왔니』는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이며,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끝없는 생명과 문화의 순환, 그 시간과 공간의 너울에서 건져낸 낯설고 친숙한 이야기, 한국인 문화 유전자의 본질을 풀어낸 책입니다.

동지를 가진 새는 멀리 난다.  
자신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방황해도  
두렵지 않다.

공적 영상

창작자로서, 88서울올림픽 개폐회식 기획·연출자로서,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서, 교육자로서의 이어령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적 영상

강인숙 관장님과 유쾌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 등 일상에서의 이어령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교양 2022년 3월 2일

[KBS 특별기획] 대한민국, 길을 묻다 : 한국이여, 젊음을 디자인하라!

KBS 2008년 11월 23일 방송

유튜브 [www.youtube.com/watch?v=v6LBrHwZe8k](http://www.youtube.com/watch?v=v6LBrHwZe8k)

검색일 : 2022년 8월 24일

아무도 가지 않던 길을  
한 발 한 발 가보는 것.  
그 재미로 살았어요.

이어령 전 장관이 어린이와 젊은 엄마들에게 주는 메시지

2009년 3월 23일 조선닷컴

[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19/2009031900904.html](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19/2009031900904.html)

검색일 : 2022년 8월 25일

1933년 12월 29일	충남 아산 출생 / 호적: 1934년 1월 15일
1952년	부여고 졸업
1956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1960년	서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
1960년 ~ 1972년	서울신문·한국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조선일보 논설위원
1966년 ~ 1989년	이화여대 국어국문과 교수
1973년	경향신문 프랑스 파리 특파원
1972년 ~ 1985년	월간 문예지「문학사상」주간
1979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1981년 ~ 1982년	일본 동경대학 비교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1987년 ~ 1989년	이화여대 기호학연구소 소장
1988년	88서울올림픽 개·폐회식 기획·연출
1989년	88서울올림픽 공로 체육훈장 맹호장
1990년 ~ 1991년	초대 문화부 장관
1992년	대한민국 청조근정훈장
1993년	법국민독서 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 상임고문
1994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문학평론)
1995년 ~ 1998년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석학교수
1998년 ~ 2001년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석좌교수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
1999년 ~ 2000년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
2001년	서울특별시 문화상
2001년 ~ 2015년	중앙일보 상임고문
2003년	제48회 대한민국 예술원상
2006년	자랑스런 서울대인상
2007년	3.1 문화예술상
2008년	제12회 만해대상
2008년 ~ 2019년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
2009년	제2회 한민족 문화예술대상
2009년	일본 나라현립대 명예총장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2011년	이화여대 명예교수 / 제13회 자랑스런 이화인상
2012~2013년	매재대 한류문화산업대학원 석좌교수
2020년	제1회 광화문문화포럼 광화문문화예술상
2020년	제11회 홍진기 창조인상 특별상
2021년	대한민국 금관문화훈장
2022년 2월 26일	별세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설 새 없이 오간 게  
 내 인생이다.

물음표가 씨앗이라면  
 느낌표는 꽃이다.

『눈물 한 방울』 중

2022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우리 문화의 거인 '이어령' 컬렉션은 이어령 선생님의 삶과 저서들을 통해 시대의 큰 스승이 남긴 지혜의 소산을 살펴보고자 기획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이어령 선생님의 업적을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침 없이 고루 다루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남긴 방대한 생각의 씨앗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컬렉션

01



문학인 이어령

이어령 선생님의 평론, 소설, 희곡, 시 등 다양한 문학 활동을 살펴봅니다.

02



문화 창조의 아이콘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서 88서울올림픽 기획부터 죽음을 예술로 승화시킨 장예전(長藝展)까지, 이어령 선생님이 남긴 문화창조의 기획들을 통해 '창조의 힘'을 탐색합니다.

03



세계적 석학이자 교육자 이어령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선생님이 교육자로서, 세계적 석학으로서 남긴 교육적, 학문적 성과를 살펴보고, 후학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되새겨 봅니다.

04



말과 언어로 본 에세이스트 이어령

날카로운 혜안을 가진 문화비평가이자 학자인 이어령 선생님의 에세이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꿰뚫는 그의 빛나는 통찰력을 발견해 봅니다.

05



이어령 다시보기

이어령 선생님의 삶과 저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셨던 메시지를 만나봅니다.



# 이어령의 책

## 일반도서

서명	출판연도	청구기호	주제
전후문학의 새물결	1962년	3550-38	문학
문학을 보는 새로운 시선	1976년	3550-64	문학
생활을 창조하는 지혜	1968년	3604-40-4	문학
웃음과 눈물의 인간상	1968년	3604-40-5	문학
사랑과 여인의 풍속도	1968년	3604-40-6	문학
장미 그 순수한 모순	1969년	3604-45-4	문학
인간이 외출한 도시	1969년	3604-45-5	문학
유형지의 아침	1965년	3652-106	문학
당신은 아는가 나의 기도를	1975년	3652-1137-11	문학
통금시대의 문학	1966년	3652-124-1-5	문학
제오계절의 인간들	1966년	3652-124-1-5	문학
너와 나의 거리	1966년	3652-124-1-5	문학
증언하는 캘린더	1966년	3652-124-1-5	문학
말	1982년	3652-1320	문학
유쾌한 창조	2011년	001.3-10-19	총류
지성과 사랑이 만나는 자리	1983년	040-4-84	총류
우수의 사냥군	1975년	041-162-202	총류
고독한 군중	1962년	041-78-1	총류
생각	2009년	181.53-9-14	철학
젊은이여 한국을 이야기하자	1987년	182.671-5-2	철학
일본 문화와 상인정신	2003년	182.6913-3-1	철학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 이후	1994년	182.6913-0461 ㅈ ㅅ	철학2
젊음의 탄생	2009년	199.5-12-16	철학
메멘토 모리	2022년	199.7-22-2	철학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2011년	233.08-12-3	종교
우물을 파는 사람	2012년	234.3-12-48	종교
지성과 영성의 만남	2012년	234.8-12-195	종교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2017년	234.8-17-217	종교
지성에서 영성으로	2011년	234.8-17-224	종교
(이어령의) 보자기 인문학	2015년	309.11-15-14	사회과학
(이어령의) 가위바위보 문명론	2015년	309.11-15-9	사회과학
기업의 성패 그 문화가 좌우한다	1992년	325.001-0461 ㄱ	사회과학
기업과 문화의 충격	2003년	331.504-3-5	사회과학
디지로그	2008년	331.5-11-11	사회과학
(이어령의) 지의 최전선	2016년	331.5-16-10	사회과학

서명	출판연도	청구기호	주제
붉은 악마의 문화코드로 읽는 21세기 문화코드	2002년	331.5-3-14	사회과학
Image of Korea	2006년	331.541-6-40	사회과학
한국인의 손 한국인의 마음	2002년	380.911-2-15	사회과학
한국인의 신화	1994년	380.911-0461 ㅎ	사회과학
매화	1996년	380.911-0461 ㅎ ㄱ	사회과학
소나무	2005년	380.91-5-1	사회과학
대나무	2005년	380.91-5-2	사회과학
국화	2005년	380.91-6-1	사회과학
난초	2006년	380.91-6-2	사회과학
(십이지신) 호랑이	2006년	380.91-6-3	사회과학
(십이지신) 토끼	2009년	388.091-10-1	사회과학
(십이지신) 용	2010년	388.091-10-2	사회과학
(십이지신) 양	2010년	388.091-10-3	사회과학
(십이지신) 양	2012년	388.091-13-1	사회과학
뜻으로 읽는 한국어사전	1995년	704-0461 ㅁ	언어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	2014년	809.3-14-5	문학
저 물레에서 운명의 실이	2003년	809.9-3-20	문학
진리는 나그네	2003년	809-3-11	문학
저항의 문학	2003년	809-3-21	문학
세계문학에의 길	1985년	809-0461 ㅅ	문학
서양으로 가는길	1986년	810.81-12-40-11-15	문학
축소지향의 일본인	1986년	810.81-12-40-11-15	문학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	1986년	810.81-12-40-11-15	문학
문학으로 읽는 세계	1986년	810.81-12-40-11-15	문학
벽을 허무는 지성	1986년	810.81-12-40-11-15	문학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1986년	810.81-12-40-1-5	문학
노래여, 천년의 노래여	1986년	810.81-12-40-1-5	문학
푸는문화, 신바람의 문화	1986년	810.81-12-40-1-5	문학
내 마음의 뿌리	1986년	810.81-12-40-1-5	문학
한국과 일본과의 거리	1986년	810.81-12-40-1-5	문학
장군의 수염	1986년	810.81-12-40-16-20	문학
등지 속의 날개 (상)	1986년	810.81-12-40-16-20	문학
등지 속의 날개 (하)	1986년	810.81-12-40-16-20	문학
기적을 파는 백화점	1986년	810.81-12-40-16-20	문학
시와 사색이 있는 달력	1986년	810.81-12-40-16-20	문학4

서명	출판연도	청구기호	주제
여성이어, 창을 열이라	1986년	810.81-12-40-6-10	문학
차 한잔의 사상	1986년	810.81-12-40-6-10	문학
거부하는 몸짓으로 이 젊음을	1986년	810.81-12-40-6-10	문학
누군가에 이 편지를	1986년	810.81-12-40-6-10	문학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1986년	810.81-12-40-6-10	문학
고전을 읽는 법	1985년	810.903-0461ㄱ	문학
장미밭의 전쟁	2003년	810.906-3-57	문학
젊음이어 어디로 가는가	1996년	810.906-0461ㄷ	문학
시 다시 읽기	1995년	811.09-0461ㅅ	문학
공간의 기호학	2000년	811.609-0461ㄱ	문학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2016년	811.62-16-71	문학
헌팅턴비치에 가면 네가 있을까	2022년	811.62-22-108	문학
말로 찾는 열두 달	2002년	811.6-2-934	문학
어머니와 아이가 만드는 세상	2003년	811.6-3-974	문학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	1987년	812.6-0461ㅅ	문학
환각의 다리	2002년	813.6-3-204	문학
홍동백서	2004년	813.6-4-230	문학
신화 속의 한국정신	2003년	813.709-3-2	문학
한국인의 재발견	1982년	814.6-10-12	문학
지성채집	1986년	814.6-1-490	문학
이어령 대표 에세이집(상)	1986년	814.6-1-495-1-2	문학
이어령 대표 에세이집(하)	1986년	814.6-1-495-1-2	문학
어머니를 위한 여섯 가지 은유	2010년	814.62-10-135	문학
느껴야 움직인다	2013년	814.62-13-50	문학5
길을 묻다	2013년	814.62-13-51	문학
지우개 달린 연필	2013년	814.62-13-52	문학
읽고 싶은 이어령	2014년	814.62-14-35	문학
짧은 이야기, 긴 생각	2014년	814.62-14-41	문학
(딸에게 보내는) 굶나잇 키스	2021년	814.62-21-29	문학
너 어디에서 왔니	2022년	814.62-22-19	문학
시와 함께 살다	2003년	814.6-3-114	문학
오늘보다 긴 이야기	2003년	814.6-3-316	문학
지성의 오솔길	2004년	814.6-4-65	문학
젊음이어 한국을 이야기하자	2009년	814.6-9-140	문학
나를 찾는 술래잡기	1994년	814.6-0461ㄴ	문학

서명	출판연도	청구기호	주제
이어령 이것이 한국이다	1986년	814.6-0461ㅇ	문학
이것이 여성이다	1986년	814.6-0461ㅇ-1	문학
뿌리를 찾는 노래	1986년	814.6-0461ㅇ-2	문학
한국인이여 고향을 보자	1986년	814.6-0461ㅇ-5	문학
아들이여 이 산하를	1987년	814.6-0461ㅇㅇ-4	문학
천년을 만드는 엄마	1999년	814.6-0461ㅈ	문학
떠도는자의 우편번호	1986년	814.6-04772ㅌ	문학
바람이 불어오는 곳	2003년	816.6-3-40	문학
서양의 유혹	1986년	816.6-0461ㅅ	문학
생명이 자본이다	2014년	818-14-294	문학
하이쿠의 시학	2009년	831.3-9-2	문학
이어령의 삼국유사 이야기	2006년	911.03-7-1	역사
한국인의 정신적 고향 (상)	1968년	石童911.03-6-1-1-2	역사
한국인의 정신적 고향 (하)	1968년	石童911.03-6-1-1-2	역사

# 이어령의 책

## 어린이 도서

서명	출판연도	청구기호	주제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디지털	2010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경제	2010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문학	2010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과학	2010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심리	2010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역사	2011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정치	2011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철학	2011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신화	2011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문명	2011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의학	2012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춤	2012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국제관계	2012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수학	2012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환경	2012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지리	2013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전쟁	2013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언어	2013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음악	2013년	아031-10-34-1-20	총류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 미래과학	2013년	아031-10-34-1-20	총류
생각 깨우기	2009년	아100-9-2-1	철학
상상 놀이터, 자연과 놀자	2009년	아100-9-2-10	철학
생각을 달리자	2009년	아100-9-2-2	철학
누가 맨 먼저 생각했을까	2009년	아100-9-2-3	철학
뜨자, 날자 한국인	2009년	아100-9-2-5	철학
생각이 뛰어노는 한자	2009년	아100-9-2-6	철학
나만의 영웅이 필요해	2009년	아100-9-2-7	철학
로그인, 정보를 잡아라!	2009년	아100-9-2-8	철학
튼튼한 지구에서 살고 싶어	2009년	아100-9-2-9	철학
물음표에서 느낌표까지	1997년	아100-0461ㅅ-1	철학
한자는 옛 문화의 공룡 발자국	1997년	아100-0461ㅅ-10	철학
내 마음의 열두 친구1	1997년	아100-0461ㅅ-11	철학
내 마음의 열두 친구2	1997년	아100-0461ㅅ-12	철학
누가 맨 먼저 시작했나?	1997년	아100-0461ㅅ-2	철학
엄마, 나 한국인 맞아?	1997년	아100-0461ㅅ-3	철학

서명	출판연도	청구기호	주제
제비가 물었다 준 생각의 박씨	1997년	아100-0461ㅅ-4	철학
나는 지구의 산소가 될래	1997년	아100-0461ㅅ-5	철학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진다	1997년	아100-0461ㅅ-6	철학
아빠, 정보가 뭐야?	1997년	아100-0461ㅅ-7	철학
나도 그런 사람이 될 테야	1997년	아100-0461ㅅ-8	철학
너 정말로 한국 말 아니?	1997년	아100-0461ㅅ-9	철학
천년을 달리는 아이	1999년	아811.8-0461ㅅ	문학
불 나라 물 나라	1996년	아813.8-삼448ㅇ-36	문학
(이어령 창작동화) 꿈의 궁전이 된 생쥐 한 마리	1994년	아813.8-0461ㄱ	문학
(이어령 선생님이 들려주는) 축소지향의 일본인 1	2007년	아913-7-3-1-2	역사
(이어령 선생님이 들려주는) 축소지향의 일본인 2	2007년	아913-7-3-1-2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중국	2004년	아913-7-3-1-2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이탈리아	2004년	아980-5-4-1-20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에스파냐	2004년	아980-5-4-1-20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그리스	2004년	아980-5-4-1-20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터키	2004년	아980-5-4-1-20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러시아	2004년	아980-5-4-1-20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헝가리, 체코	2004년	아980-5-4-1-20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2004년	아980-5-4-1-20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스위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2004년	아980-5-4-1-20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미국	2004년	아980-5-4-1-20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2004년	아980-5-4-1-20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일본	2004년	아980-5-4-1-20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가나,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2004년	아980-5-4-1-20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인도	2004년	아980-5-4-1-20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몽골	2004년	아980-5-4-1-20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2004년	아980-5-4-1-20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이란, 이라크, 이집트	2004년	아980-5-4-1-20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영국	2004년	아980-5-4-1-20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프랑스	2004년	아980-5-4-1-20	역사
생각이 열리는 세계 문화여행 - 독일	2004년	아980-5-4-1-20	역사

---

“오늘이 제일 아름다워. 지금 여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중

---

“끝이 없어. 이어지고 펼쳐질 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중

---

“너 존재했어? 너답게 세상에 존재했어?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했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중

---

“항상 삶과 죽음을 기억하게나.

수직의 중심점이 생이고 수평의 중심점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중

---

“길 위에서 계속 새 인생이 일어나는 거야.

원래 길의 본질이 그래. 끝이 없어. 이어지고 펼쳐질 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중

---

“인생은 파노라마가 아니야. 한 커트의 프레임이야.

한 커트 한 커트 소중한 장면을 연결해 보니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중

---

“나는 너의 죽음을 통해서 노을의 그러한 힘을 믿게 된 거야.

저녁노을을 아침노을로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고,

긴 어둠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겐 있었던 거지.

나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거야.”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중

---

“창조와 파괴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야. 창조를 하려면 먼저 파괴를 해야 돼.”

『이어령, 80년 생각』중

---

“어떤 편견이나 틀도 없는 순진무구한 존재 자체.

어린아이는 그 무엇도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이지.

시작하는 것보다 무서운 힘은 없어.

아이들이야말로 그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잖아.”

『이어령, 80년 생각』중

---

“생각을 춤추게 하라. 그리고 춤추듯 살아라. 삶은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란다.”

『이어령의 춤추는 생각 학교-02: 생각을 달리자』중

---

“언어에서 새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나라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거시기 머시기』중

---

“언어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과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글쓰기이고 말하기의 핵심입니다.”

『거시기 머시기』중

---

“여기에 네가 자유로이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당을 열어 놓았어.

그 마당에서 네 생각을 마음껏 펼쳐 보렴.

무지개처럼 여러 색깔로 빛나는 미래가 보일 거야.”

『이어령의 춤추는 생각 학교-02: 생각을 달리자』중

---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쉼표 없이 오간 게 내 인생이다.

음표가 씨앗이라면 느낌표는 꽃이다.”

『눈물 한 방울』중

---

“아무도 가지 않던 길을 한 발 한 발 가보는 것. 그 재미로 살았어요.”

시사저널 《이어령 인터뷰 ① 빨리 감기 하듯이 살고 있다》중

---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움으로써 짐승과 다른 풍경과 행위를  
창조하게끔 하는 힘, 그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우리는 문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바람개비는 돈다』중

---

“잘 있으세요, 여러분들. 잘 있어요.”  
tvN <이어령의 내가 없는 세상>중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  
즉 언어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언어의 힘으로 내일을 바꿀 수 있는가>중

---

“둥지를 가진 새는 멀리 난다.  
자신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방황해도 두렵지 않다.”  
KBS 교양 <대한민국, 길을 묻다: 한국어, 젊음을 디자인 하라>중

---

“아니, 아무 이유도 묻지 맙시다. 이야기를 듣다 잠든 아이도 깨우지 맙시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게 되면 자신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아이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천년만년을 이어온 생명줄처럼 이야기 줄도 그렇게 이어져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 일장춘몽이 아닙니다. 인생 일장 한 토막 이야기인 거지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선녀와 신선을 만나 돌아온 나무꾼처럼 믿든 말든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옛날이야기를 남기고 가는 거지요.  
이것이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한국인 이야기’ 꼬부랑 열두 고개입니다.”  
『너어떻게살래』중

---

“창조 뒤에는 늘 외로움과 정적, 그리고 암흑이 온다. 한밤의 태양이 아닌 대낮의 어둠이 있다.  
딱 한 번밖에 못하는 시간이요, 다시 점유할 수 없는 공간이다.  
사람들은 일회성 행사에 왜 그 많은 돈을 낭비하느냐고 묻는다.  
이 물질주의자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당신이 태어날 때, 죽을 때도 한순간이다.  
그것을 위해 당신은 전 생애를 바치고 있지 않은가.”  
『이어령, 80년 생각』중

---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온 우주에 단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승리인 생명력이예요. 어떤 절망의 시대에도 생명의 힘은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이어령, 80년 생각』중

---

“시를 썼습니다.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리고 보여서는 안 될 달의 이면 같은 자신의 일부를 보여준 것입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중

---

“미래는 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야. 그렇다고 역사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  
그 비 전이 천천히 오더라도 오늘 그것을 보여줘야 해.”  
『(이어령의) 지의 최전선』중

---

“젓가락은 나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신분증이다.  
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셀프 아이덴티티, 그게 바로 수저다.”  
『너 누구니: 젓가락의 문화 유전자』중

---

“과녁에 꽂혀 정지해 있는 화살보다  
나는 어디론가 끝없이 날아가고 있는 허공의 화살을 좋아한다.  
또 하나의 가능성을 찾다가 실패해 버린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 희곡을 썼다.”  
『기적을 파는 백화점』중

---

“종말에 대해 쓰면, 그 기록은 종말 뒤에 오는 것이니까 종말보다 0.1초 더 사는 거지.  
의미론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나는 글을 쓰고 한마디 말을 남길 겁니다.  
사과나무가 아니라 언어의 씨앗을 우주에 뿌리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중

---

“불확실한 바다로 용감히 뛰어드세요.  
젊음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납니다.  
젊음은 그렇게 탄생합니다.”  
『젊음의 탄생』중

잘 있으세요,  
여러분들.  
잘 있어요.

---

tVN <이어령의 내가 없는 세상> 중

故 이어령 1주기 추모 특별전

# 이어령의序

전시기간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부터  
4월 23일 일요일 까지

전시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전시실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문의 전화

02. 590. 0561 ~ 2

도슨트

매주 수 15:00, 토·일 14:00 진행  
(약 20분 소요)

주최·주관

국립중앙도서관·영인문학관

본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모든 저작권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영인문학관에 있습니다.